

비혼 여성의 비혼 자발성 관련요인 탐색: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to Women's Voluntary Ever-Singleness: Focusing on Marriage and Family Values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강 은 영

부 교수 진 미 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생활과학연구소

교수 · 겸임연구원 옥 선 화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Eun Young Kang

Associate Professor : Mee jung Chi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Research Fellow : Sun Wha Ok

◀ 목 차 ▶

I. 서론

II. 관련연구 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whether or not marriage and other family values operate as factors that influence the willingness of women to voluntarily remain ever-single. The study includes as variables the sub-fields of marriage and family values that consist of traditional gender role awareness, freedom in sexual attitude, open outlook on marriage, familism, an acceptance of diverse families, fear of marriage, and assignment of value to extramarital factors.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59 women in their twenties to forties with no experience of marriage, which were selected from the data used in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s Investigation of Single Households(2007). Upon inserting value-related variables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into a binomial logistic

Corresponding Author : Eun Young Kang,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599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Korea Tel: +82-2-880-8770 Fax: +82-2-871-2506 E-mail: misayang@hanmail.net

* 본 연구는 2010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model for analysis, age, open outlook on marriage, assigned value on extramarital factors, and an acceptance of diverse families were shown to be factors influencing the willingness of women to remain ever-single. That is, as the age spectrum is lower, outlook on marriage is open, more values are granted on the extramarital factors, and the degree of an acceptance of diverse views on family is higher, the chances that women would remain ever-single voluntarily were shown to increase.

주제어(Key Words) : 자발적 비혼 여성(voluntary ever-single women), 결혼 및 가족 가치관(marriage and family values), 이항로지스틱분석(binomial logistic analysis)

I. 서론

90년대 이후로 한국사회의 가족은 결혼연령의 상승, 혼인율 저하, 출산율 감소, 이혼율 증가, 그리고 가족구조의 다양성 등 과거 전형화된 가족과는 현저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왔다. 그 가운데 초혼연령의 상승 및 그로 인한 비혼 인구의 증가는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될 뿐 아니라 생활양식의 장기적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혼 및 비혼 1인 가구의 전반적인 결혼 및 가족의식, 생활실태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김혜영, 선보영, 진미정, 사공은희, 2007). 무엇보다 여성의 경우 만혼 및 비혼 현상은 출산행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혼인지연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결혼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의 변화가 지목되고 있다는 점에서(김두섭 외, 2007), 비혼 여성의 증가는 중요한 인구사회학적, 가족학적 함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동안 여성의 비혼 또는 만혼 현상은 저출산 관련 분석에서 주요 원인으로 다루어졌을 뿐 그 자체로 이슈화되어 조명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여성의 학력 신장 및 전문직종으로의 진출 확장의 영향으로 소위 '골드 미스'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증가하면서, 결혼하지 않은 고학력 비혼 여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들이 최근 서서히 축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삶을 둘러싼 외부 조건의 변화와 그에 수반되는 의식의 변화가 결혼 및 가족 변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어왔다는 점을 상기해보자면, 결혼 경험이 없는 비혼 여성들은 결혼 관련 규범 및 태도 변화를 예측해볼 수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현재의 비혼 상태가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의 여부는 비혼의 동기가 다를 뿐 아니라 혼인으로서의 이행에 있어 삶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계가 유동적임에도 불구하고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Stein, 1981). 특히 자발적 비혼 여성의 경우 결혼 및 가족 형성, 출산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태도 및 의식성향에 가장 대비되는 특성을 보일 수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그 변화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성의 비혼 현상은 우선 학력 및 직종 변수와 초혼연령

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기존 논의들을 통해 접근해볼 수 있다. 관련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김승권 외, 2003; 박경숙, 김영혜, 김영숙, 2005; 이삼식, 199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여성의 초혼연령은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 및 그에 따른 결혼, 성역할 관련 규범의 변화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그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 및 전문직/준전문직 취업형태는 남성의 고용 상황 및 조건에 따라 결혼의 자원이 되기도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결혼을 유보할 만한 조건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선행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일정 연령대를 넘어서면 결혼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교육수준 향상과 취업 기회 증대는 자발적 비혼으로의 유인이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비자발적 비혼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의 고학력 현상 및 경제활동 참여의 증대는 여성의 삶의 제반 환경 및 남녀 관계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결혼 및 가족 관련 의식이나 가치관 변화와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본 연구는 연령과 직업, 학력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 비혼의 자발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기초적 탐색은 결혼 관련 규범의 변화 및 가족관계의 재정립 등의 주제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결혼 및 가족과 관련된 일련의 가치관들이 비혼 자발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혼인지연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20대 후반~30대 초 여성들의 가치관이 개방적임을 알 수는 있으나,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가 비혼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거나 인지함에 있어 결정 요인이 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아직까지 부재한 형편이다. 여성이라는 성별 변수와 가치관이라는 의식관련 변수는 결혼 및 가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성들의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의 변화가 행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양태는 어떠한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에 기초하여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비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교육수준, 직업유형)은 비혼 자발성 여부와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2】결혼 및 가족관련 가치관은 자발적/비자발적 비혼 여성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결혼 및 가족관련 가치관 변인들은 비혼 자발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II. 관련연구 고찰

1. 비혼에 대한 이해

관련연구 고찰에 앞서, '비혼' 및 비혼 '자발성'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혼'이라는 용어는 여성주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먼저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미혼' 또는 '독신'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맥락에 놓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비혼'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현재 결혼 상태에 있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된다(심경미, 2003). 이 경우 '비혼'은 단지 "혼인이 아닌" 상태를 가리키므로 가치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의미는 주로 여성주의 진영과 관련되는데, 여기서의 '비혼'은 "결혼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역시 다양한 결혼 지위가 포함되나, 앞서 언급한 '비혼'과는 달리 결혼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혹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의해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이념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파생되어 '미혼'이라는 의미에 대항하는 뜻으로(심경미, 2003) 사용되기도 한다. 최근의 경향은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든 '비혼'이라는 용어가 '미혼'이나 '독신'을 대체하는 용어로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중립적인 첫 번째의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하되, "결혼 경험이 없는"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초점을 두는 비혼 '자발성'의 의미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자발성'에 대한 논의는 Stein(1981)의 독신 유형 구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자발성'의 기준은 학업이나 경력 및 자기계발 등의 이유에서 혹은 결혼에 반대하거나 종교적 이유 등에서 독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공통적으로는 "결혼을 원하지 않는 상태"로 설명된다. 지금까지 비혼 자발성을 다루고 있는 국내 연구(김경원, 김태현, 2005; 김혜영 외, 2007; 심경미, 2003)는 대체로 이러한 Stein의 논의에 기초하여 자발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발성'과 관련하여, 『비혼 1인 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김혜영 외, 2007)에서 사용된 자료를 기초로 한 탐색적 수준의 연구인만큼, 이 연구에서 분류되는 자발적 비혼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III. 연구방법>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2. 비혼 자발성 관련 변인

여성의 혼인지연 및 비혼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 증대를 비혼 현상의 주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김태현, 2005; 변화순, 2002; 이수희, 2005; 전광희, 2002; Macklin, 1980). 비혼 여성들 중에서도 교육을 받고 전문직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다른 집단에 속한 여성들보다 비혼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는 점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되게 지적되고 있다(이인수, 1994; Cooney & Uhlenberg, 1989; Goldscheider & Waite, 1986; Houseknecht, Vaughan, & Statham, 1987). 30~34세 비혼 여성의 직업구조에 대한 통계 자료 역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종이 전문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통계청, 2007). 또한 30대 중반의 인생설계를 20대 초반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점 역시 혼인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즉 자신의 미래상을 가정주부로 생각한 여성의 경우 직업 경력이나 일에 초점을 두고 미래를 계획한 여성에 비해 보다 일찍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herlin, 1980). 이러한 연구결과는 혼인지연 또는 비혼 지향성은 결혼 적령기 이전의 생애단계에서부터 거슬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한편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처럼 여성의 비혼 현상은 초혼연령과 학력 및 취업특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통해 접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들을 보면, 이러한 관련성은 특히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1970년에서 1990년 기간의 <인구동태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결혼시기를 분석한 한 연구(이삼식, 1993)에서는,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교육수준과의 관련성은 1980년대 후반부로 올수록 1970년대에 관찰되는 교육수준과 초혼연령과의 정관계가 남녀 모두 역전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 교육수준별 초혼연령을 분석한 박경숙, 김영혜와 김영숙(2005)의 연구에서는, 1980년에서 2000년 사이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초혼연령이 일관되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모든 교육수준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초혼연령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만 중·고등학교 학력의 경우 초혼연령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 코호트를 분석한 결과, 1990년 이전 결혼 코호트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1990~1997년에 결혼한 여성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시기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1998년 경제위기 이후 결혼 코호트에서는 여성의 결혼시기에 대한 교육효과는 약해지는 대신 취업상태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일하는 여성일수록 결혼시기가 유의미하게 지연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김승권 외, 2003)의 조사에 따르면, 1997년 이후 결혼한 경우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저학력의 초혼연령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으며 고학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이러한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관찰된다고 한다. 직업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조사에서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결혼시기에 관계없이 전문직/준전문직 여성의 결혼연령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역시 1997년을 기점으로 직종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에 따른 여성의 취업관련 특성과 초혼연령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역시 미혼 및 비혼 현상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나 연구결과들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결혼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김두섭 외, 2007). 혼인지연 현상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는 경제적인 요인이, 여성의 경우는 가치관 변화가 결혼시기를 지연시키는 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장혜경 외, 2003). 이삼식(2006)의 연구에서는 결혼필요성이 약하거나 성분업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 결혼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미혼 남녀 모두에게서 관찰되나, 역시 미혼 여성의 결혼관이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통적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대한 미혼 여성의 태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성평등 의식이 성역할 규범과 충돌할 경우 결과적으로 결혼 포기 또는 지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를 파악해볼 수 있는 또 다른 현상은 비혼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라 할 수 있다. 성과 연령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남성보다 여성이 독신 생활에 있어서 훨씬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은 지적하고 있다(김소라, 2007). 비혼 여성 가운데에서도 40대 이상의 자발적 비혼 유형에 속한 여성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인숙, 2000). 연령의 경우 조금 다른 분석결과를 보이기도 하는데,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를 분석한 여성정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김혜영 외, 2007), 독신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이 낮고 결혼경험이 없으며 자발적인 독신일수록 크

게 나타난다고 한다. 특히 비혼 사유에 따라 독신성향과 독신생활의 만족도 및 불안감을 분석한 결과, 결혼경험이 전혀 없는 비혼 집단의 경우 자발적 비혼 집단에서 독신의 성향과 독신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독신생활에서 오는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낮게 관찰되고 있다. 비혼과 관련된 독신성향의 결정요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만 관련지어 보았을 때 성별과 독신사유의 효과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1인 가구 지속기간, 연령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 비자발적 비혼에 비해 자발적 비혼일수록,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독신성향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의식, 결혼관, 가족주의 등 다양한 의식 변인이 추가되면서 독신성향에 대한 설명력이 증가되고 있어, 가치관이 비혼 현상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재확인해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이 여성의 비혼 자발성과도 관련되는지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해볼 수 있다. 특히 성별과 비혼 사유, 그리고 가족형성과 관련된 일련의 의식변인들이 독신성향을 결정짓는 주된 요인이라는 분석결과(김혜영 외, 2007)는 이러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비혼 1인 가구의 동향과 특성을 분석한 2007년 연구보고서『비혼 1인 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이하『비혼 1인 가구조사』로 표기)에서 사용된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이 연구는 ‘비혼 1인 가구’를 “현재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무배우자로서 단독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혼자 생활하는 가구”로 정의,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최종 연구대상자들은 2005년 센서스 기준 만 25~54세의 미혼 혹은 이혼하거나 사별한 1인 가구의 남녀이다. 조사대상 시점이 2007년이므로 실제 20대 응답자들의 연령은 남녀 평균 초혼연령에 근접해 있는 20대 후반에 해당되며, 50대 역시 결혼가능성이 적은 장년층 후기에 해당되는 연령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설계된 총 조사 최종 표본 수는 1,200표본이며,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과 연령분포를 주요 기준으로 한 층화표집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결혼 경험이 없는 20대~40대 비혼 여성을 추출하였으며, 연구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총 295명의 비혼 여성이다. 『비혼 1인 가구조사』연구에서는 비혼 사유를 총 46개 범주로 정리한 다음, ‘경제적 이유’,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295)

| 구분 | 비자발적 비혼 여성 | 자발적 비혼 여성 | 비혼 여성 전체 | |
|------------------|------------------|-----------------|------------------|------------|
| | (n = 207)/ 빈도(%) | (n = 88)/ 빈도(%) | (n = 295)/ 빈도(%) | |
| 연령 | 20대 | 53(25.6%) | 38(43.2%) | 91(30.8%) |
| | 30대 | 115(55.6%) | 37(42%) | 152(51.5%) |
| | 40대 | 39(18.8%) | 13(14.8%) | 52(17.6%) |
| 교육수준 | 중졸이하 | 2(1.0%) | 1(1.1%) | 3(1.0%) |
| | 고졸 | 64(30.9%) | 27(30.7%) | 91(30.8%) |
| | 대졸이상 | 141(68.1%) | 60(68.2%) | 201(68.1%) |
| 직업 ^{주)} | 전문기술직 | 20(10.5%) | 9(11.3%) | 29(10.7%) |
| | 사무직 | 82(42.9%) | 34(42.5%) | 116(42.8%) |
| | 서비스판매직 | 79(41.3%) | 31(38.8%) | 110(40.6%) |
| | 근로생산직 및 기타 | 10(5.3%) | 6(7.4%) | 16(5.9%) |
| 월소득 | 0-149만원 | 66(31.9%) | 32(36.4%) | 98(33.2%) |
| | 150-200만원 | 92(44.4%) | 34(38.6%) | 126(42.7%) |
| | 201만원 이상 | 49(23.7%) | 22(25.0%) | 71(24.1%) |
| 현재 취업여부 | 취업 | 191(92.3%) | 80(90.9%) | 271(91.9%) |
| | 비취업 | 16(7.7%) | 8(9.1%) | 24(8.1%) |

주. 직종을 표시하지 않은 24명은 결측 처리하였음(N = 271)

‘결혼이 주는 부담’, ‘적절한 배우자를 찾지 못했거나 결혼 기회상실’에 해당되는 응답들을 ‘비자발적 비혼’으로, 그리고 ‘결혼시기가 아님’, ‘결혼생각 없음’에 해당되는 응답들을 ‘자발적 비혼’으로 비혼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류에 기초하되, ‘결혼이 주는 부담’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비혼 사유로 제시한 응답자들은 제외하였다. 이 항목으로 분류되는 응답들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의식 등으로 인해 결혼을 유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결혼이 여의치 않은 여타의 비자발적 비혼과는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이유’, ‘적절한 배우자를 찾지 못했거나 결혼기회상실’

을 ‘비자발적 비혼’으로, ‘결혼 시기가 아님’, ‘결혼생각 없음’을 ‘자발적 비혼’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연구대상을 추출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전체 비혼 여성 중, 비혼 사유에 따라 비자발적 비혼으로 분류된 여성은 207명(70.2%), 자발적 비혼 여성은 88명(29.8%)으로 비자발적 비혼 여성이 자발적 비혼 여성보다 2.4배 가량 더 많았다. 연령대는 전반적으로 30대가 많았으나, 자발적 비혼 여성의 경우 20대(43.2%)와 30대(42%)는 집단내 비슷한 분포를 보여주었다. 교육수준 및 직업, 응답 당시 취업여부의 분포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 연구변수의 선정 및 분석방법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을 위해 『비혼 1인 가구조사』연구에서 선정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연령, 교육수준, 직업으로 구성되었다. 그 가운데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의 빈도가 높지 않아 고졸과 함께 묶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직업은 전문기술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근로생산직 및 기타로 분류 가능하였으나, 근로생산직 및 기타에 해당되는 응답자가 많지 않아 실제 분석에서는, 근로생산직 및 기타를 서비스판매직에 포함하여 서비스판매직 및 기타로 분석하였다.

1)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자발적/비자발적 비혼의 경계를 외부의 기준에 근거해서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비혼 여성에 대한 비교적 최근의 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심경미, 2003), ‘결혼이 주는 부담’은 소극적 비혼 유인으로서 자발적/비자발적 여성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한다. 다만 자발적 비혼 여성의 경우, 자기발전이나 일에 대한 욕구, 독립적인 삶의 방식 같은 적극적인 비혼 유인에 강하게 이끌린다는 점이 다르다고 지적되고 있다. ‘결혼이 주는 부담’은 이처럼 어느 영역으로 분류하기가 현재로서는(즉, 어느 정도 합의된 연구결과가 없으므로)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탐색적 수준의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표 2〉 연구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 구분 | 변수 | 정의 및 측정방법 | 변수수준/신뢰도(α) |
|--------------|------------------------------|---|----------------------|
| 사회인구학적 특성 | 연령 | 20대, 30대, 40대 | 서열변수 |
| | 교육수준 | 고졸 이하, 대졸 이상 | 명목변수 |
| | 직업 | 전문기술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및 기타 | 명목변수 |
| 성·가족 의식 | 전통적 성역할 의식 (3분항) | 집안의 큰일은 남자가 결정하는 것 여성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 남자는 돈을 버는 것,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 | 연속변수 (.603) |
| | 자유로운 성의식 (3분항) | 서로 사랑한다면 결혼 전에 성관계 가능 결혼했다라도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 가능 사랑하지 않아도 성관계 가능 | 연속변수 (.732) |
| | 개방적 결혼관 (5분항) | 계약결혼을 하는 것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는 것 동성끼리 결혼하여 함께 사는 것 | 연속변수 (.780) |
| | 가족주의 (3분항) | 개인적인 관심보다 가족의 관심을 더욱 중요시 어려운 일에는 이웃이나 친구보다 친척이 더 큰 힘 사회보다 내 가족의 안녕이 우선되어야 함 | 연속변수 (.613) |
| | 다양한 가족 수용도 (4분항) | 한부모 가족도 양부모 가족처럼 자녀를 키울 수 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 결혼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 연속변수 (.614) |
| | 결혼의 두려움 (3분항) | 생계를 꾸려가는 일이 어렵다 결혼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이 어렵다 | 연속변수 (.641) |
| 독신성향 | 결혼외적요소에 가치 부여 (3분항) | 결혼보다는 일이 중요하다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배우자보다는 친구와 동료들이 중요 | 연속변수 (.680) |
| | 비혼 자발성 | 비자발적 비혼(경제적 이유, 적절한 배우자를 찾지 못했거나 결혼기회 상실)=0 자발적 비혼(결혼시기가 아님, 결혼생각 없음)=1 | 이분변수 |

가족형성에 관련되는 결혼 및 가족관련 가치관 변인들은, '성·가족 의식'에 해당되는 전통적 성역할 의식, 자유로운 성의식, 개방적 결혼관, 가족주의, 다양한 가족 수용도 그리고 '독신성향'에 관련되는 결혼의 두려움, 결혼외적요소에 가치부여 변인들로 구성되었다.²⁾

본 연구의 궁극적인 종속변수는 비혼 자발성 여부에 따른

비혼 유형으로, 이분변수화하여 처리하였다. 각 변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비혼 자발성 여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결혼 및 가족 관련 가치관에 있어 자발적/비자발적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비혼 자발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12.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2) 이러한 의식관련 변인 역시「비혼 1인 가구조사」에서 추출한 것이므로 이 연구에서 구성된 척도를 본 연구에서는 따르고 있다.

IV. 연구결과

1.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비혼 자발성과의 관련성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인 연령, 교육수준, 직업과 비혼 자발성 관련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연령은 자발성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chi^2 = 8.95, p < .05$), 교육수준과 직업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령을 보면, 30~40대의 경우 비슷하게 비자발적 비혼이 자발적 비혼 집단보다 약 세 배 더 많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평균 초혼 연령에 근접해 있는 20대 후반 여성들의 경우, 비자발적 비혼과 자발적 비혼이 전체 비혼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 상황에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결혼적령기 규범의 변화에 대한 향후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무직 여성의 초혼시기가 고위·전문직에 비해 유의미하게 느리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박경숙 외, 2005)와 대졸 이상의 직업을 가진 여성이 비혼율 증가 및 만혼 경향을 주도한다는 각종 통계결과에 기초하여(김소라, 2007), 교육수준 및 직업과 비혼 자발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해보았으나 유의미한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 각각의 집단에서 비자발적 비혼과 자발적 비혼의 비율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에 있어, 전문기술직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자발적 비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았으나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

2. 비혼 유형에 따른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의 차이

가족형성과 관련되는 결혼 및 가족 가치관에 있어, 비혼 자발성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분석결과, 개방적 결혼관($t = -2.24, p < .05$), 다양한 가족 수용도($t = -2.24, p < .05$)에서 비자발적 비혼 집단과 자발적 비혼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혼외적요소에 가치 부여($t = -1.87, p < .10$) 역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비자발적 비혼에 비해 자발적 비혼 유형에 속하는 여성의 경우, 결혼관이 보다 개방적이고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으며 결혼외적 요소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성역할 의식, 자유로운 성의식, 가족주의, 결혼의 두려움 영역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4> 비혼 유형에 따른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의 차이

(N = 295)

| 변인 | 비자발적 비혼 (N = 207) | | 자발적 비혼 (N = 88) | | t |
|-----------------|----------------------|-----|--------------------|-----|--------|
| | M | SD | M | SD | |
| 전통적 성역할 의식 | 2.46 | .61 | 2.38 | .69 | 1.04 |
| 자유로운 성의식 | 1.97 | .57 | 2.00 | .67 | -.34 |
| 개방적 결혼관 | 2.00 | .59 | 2.18 | .71 | -2.24* |
| 가족주의 | 3.59 | .60 | 3.57 | .64 | .35 |
| 다양한 가족 수용도 | 3.29 | .60 | 3.47 | .67 | -2.24* |
| 결혼의 두려움 | 2.43 | .59 | 2.32 | .59 | 1.43 |
| 결혼외적요소에 가치부여 | 2.45 | .45 | 2.57 | .54 | -1.87† |

† $p < .10$ * $p < .05$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비혼 자발성과의 관련성

(N = 295)

| 변인 | 비자발적 비혼 | 자발적 비혼 | 전체 | χ^2 |
|------|-------------|------------|-----------|-------------------------------|
| 연령 | 20대 | 53(58.2%) | 38(41.8%) | $\chi^2 = 8.95^*$ $df = 2$ |
| | 30대 | 115(75.7%) | 37(24.3%) | |
| | 40대 | 39(75.0%) | 13(25.0%) | |
| | 계 | 207(70.2%) | 88(29.8%) | |
| 교육수준 | 고졸이하 | 66(70.2%) | 28(29.8%) | $\chi^2 = .00$ $df = 1$ |
| | 대졸이상 | 141(70.1%) | 60(29.9%) | |
| | 계 | 207(70.2%) | 88(29.8%) | |
| 직업 | 전문기술직 | 20(69.0%) | 9(31.0%) | $\chi^2 = .04$ $df = 2$ |
| | 사무직 | 82(70.7%) | 34(29.3%) | |
| | 서비스판매직 및 기타 | 89(70.6%) | 37(29.4%) | |
| | 계 | 191(70.5%) | 80(29.5%) | |

* $p < .05$

3. 비혼 자발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혼 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교차분석 결과 사회인구학 변인 중 유의미하게 나타난 연령 변인과 가치관 변인에 있어 t-test 결과 유의미하게 나타난 개방적 결혼관, 다양한 가족 수용도, 결혼외적요소에 가치부여, 그리고 자유로운 성의식 변인을 투입하여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유로운 성의식 변인은 집단 간 차이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선행연구(김혜영 외, 2007)에 따르면 독신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또한 자발적 비혼 집단에서 독신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탐색해보기 위해 분석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비혼 유형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N = 295)

| 변수 | B(S.E.) | Exp(B) |
|--------------|--|--------|
| 연령 | -.69**(21) | .50 |
| 개방적 결혼관 | .46*(.24) | 1.59 |
| 다양한 가족 수용도 | .44†(.24) | 1.56 |
| 결혼외적요소에 가치부여 | .70*(.31) | 2.02 |
| 자유로운 성의식 | -.40(.26) | .67 |
| 상수 | -3.03(.97) | .05 |
| -2LL | 336.65 | |
| χ^2 | 22.9***(<i>df</i> = 5, <i>p</i> = .000) | |

주. 종속변수의 준거집단은 '자발적 비혼 유형' 임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위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혼의 자발성 여부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는 연령, 개방적 결혼관, 결혼외적요소에 가치부여, 다양한 가족 수용도였다. 모델 적합도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연구 모형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중, 자발적 비혼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연령 변수를 투입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자발적 비혼의 승산은 약 0.5배가 되어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발적 비혼의 승산이 약 2배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결혼 및 가족 관련 가치관에 있어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이 일정할 때 결혼관이 개방적일수록 비혼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승산은 약 1.59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결혼외적 요소에 가치를 부여할수록 자발적 비혼이 될 승산이 약 2.02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발적 비혼을 선택할 승산은

약 1.5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자유로운 성의식은 비혼의 자발성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가 갖는 가족학적, 사회적 함의에 주목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비혼 자발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연령, 교육수준, 직업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 비혼 현상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자발성 여부와도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과 이에 관련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혼 여성들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인들과 비혼 자발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과 직업은 자발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만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초혼연령, 즉 결혼적령기에 해당되는 20대 후반 여성들을 중심으로 결혼 적령기 관련 규범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여성의 초혼연령 변화가 교육수준 향상 및 취업과 관련된다고 볼 때, 과거 여성들이 결혼으로의 이행에 있어서 순서규범보다 연령규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은기수, 1995), 이제는 여성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연령규범보다 순서규범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의 만혼 및 비혼 현상은 결혼 규범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결혼시기에 대한 인식 변화가 비혼 또는 혼인지연 현상을 초래하고 그 결과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재확인해 볼 수 있다.

둘째, 결혼 및 가족 가치관에 있어 비혼 자발성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본 결과, 비자발적 비혼에 비해 자발적 비혼 집단의 경우, 결혼관이 보다 개방적이고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으며 결혼외적요소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성역할 의식, 자유로운 성의식, 가족주의, 결혼에 대한 두려움 영역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 역시 비혼의 자발성 및 비혼 동기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추후 다른 접근방법으로 차이의 유무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의식이 결혼 또는 가족 관련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20~30대 미혼 여성의 거주 독립 결정에 가족

주의 가치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이숙진, 2008)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점차 길어지고 있는 청년 후기의 원가족 관계 및 가족주의 가치 형성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비혼 여성의 자발성 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해보기 위해, 연령 및 결혼, 가족 가치관 변인들의 영향력을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연령, 개방적 결혼관, 결혼외적요소에 가치부여, 다양한 가족 수용도가 유의한 요인들로 나타나, 연령이 낮고, 결혼관이 개방적이며, 결혼외적요소에 가치를 부여할수록, 그리고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발적 비혼의 승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발적 비혼의 동기가 가부장적 결혼 및 가족, 성역할에 대한 불만족 등의 소극적 비혼 유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심경미, 2003), 한편으로는 독립적이며 자기 성취적인 삶의 방식의 적극적 비혼 유인의 영향을 보다 강하게 받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는 결혼 및 가족 가치관 약화와 비혼과의 관련성에 있어 차후 보다 세밀한 분석을 요하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20~30대 비혼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보다 강하거나 또는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기존의 연구나 관련 통계 자료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그러한 가치관 약화나 부정적 태도가 비혼의 자발성에 과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관찰되었듯이 자발적 비혼 여성의 경우 비자발적 비혼 여성에 비해 결혼이나 가족에 한층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발적 비혼은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의 한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가치 다원화라는 거시 변화의 흐름 속에 가장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가치 또한 예외가 아님을 짐작해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및 그에 따른 결혼 관련 규범의 변화라는 맥락과의 연계성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결혼외적요소, 예컨대 일, 친구 및 동료에 보다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비혼 자발성 여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은, 부부관계에 있어 각자의 생의 전이 혹은 가족생활 주기의 변화에 따라 그 관계의 속성 및 관심의 초점이 바뀔 수 있는(Marks, 1986), 부부 역동의 다양성에 대한 정보가 청년기에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발적 비혼 집단에 “아직 결혼시기가 아니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20~30대 초반 자발적 비혼

집단이 일정 연령대를 넘어서면 혼인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2차 자료를 사용한 데 따른 제한점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초혼 연령이 계속 늦춰지는 현상을 감안한다면 향후 비혼 자발성에 대한 논의는 연령대 설정에 보다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교육수준과 직업 변인의 경우, 자발성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분석 상 표본이 가진 한계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고졸이하와 대졸이상의 두 집단으로만 나누어 보았다. 결혼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에 있어서 고졸학력과 대졸이상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통계자료에 근거해볼 때에도(김소라, 2007), 학력을 두 집단으로만 나누었을 경우 자발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이러한 한계는 직업 변인에 있어서도 해당될 수 있다. 즉, 각 직종별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여 좀더 세분화해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직종에 따라 여성들의 초혼시기가 유의미하게 달라진다는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해볼 때(박경숙 외, 2005), 자발성과 관련해서도 추후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자발적/비자발적 유형 구분이 연구대상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비혼 사유에 따른 조사자의 인위적인 구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비혼 상태가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의 문제는 당사자 본인의 인식과 판단의 영역에 속한 것이므로, 외부 기준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2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비교를 위한 충분한 표본이 확보되지 않은 점도 있었으며, 결혼 및 가족 가치관에 있어 보다 다양한 관련 의식변인들을 살펴보지 못한 어려움도 있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비혼으로서의 만족스런 삶이 가능한 배경, 구조적 조건의 변화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혼인지원 상태가 지속적인 또한 자발적인 비혼 상태로 이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경원, 김태현(2005). 질적 연구를 통한 독신동기 요인과 남녀 차이. *대한가정학회지*, 43(6), 61-79.
- 김두섭, 차승은, 송유진, 천희란, 김정석(2007). 저출산 사회의 결혼·자녀양육과 가족생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소라(2007). 고학력 비혼여성의 독신문화에 관한 연구: 새

- 로운 생애단계의 사회적 구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승권, 최민자, 이연주, 박정환, 선우덕, 조성현 외(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현(2005). 가치와 변화와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제 102호, 16-24.
- 김혜영, 선보영, 진미정, 사공은희(2007). 비혼 1인 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경숙, 김영혜, 김현숙(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론, 성역할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 33-62.
- 변화순(2002). 혼인상태. 한국의 인구 1. 통계청.
- 심경미(2003). '비혼' 여성에 관한 연구: 30대 중반 이후 40대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비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은기수(1995).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 18(1), 89-117.
- 이삼식(1993). 한국인의 결혼행태 변화분석. **한국인구학**, 16(2), 84-110.
-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 이수희(2005). '저출산'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저출산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숙진(2008). 20, 30대 미혼여성의 거주독립 결정요인: 청소년 및 성인자녀의 자립교육 강화방안 탐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인수(1994). 한국 여성의 결혼전이 시기에 미치는 결정요인 연구 - 1940, 50년대 코호트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52-261.
- 이인숙(2000). 비혼 여성의 자립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혼자사는 여성에 대한 자립지원 방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1-41.
- 장혜경 외(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여성가족부.
- 전광희(2002). 출산력. 한국의 인구 1. 통계청.
- 통계청(2007).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보고.
- Cherlin, A.(1980). Postponing Marriage: The Influence of Young Women's Work Expect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2), 355-365.
- Cooney, T., & Uhlenberg, P.(1989). Family-building Patterns of Professional Women: A Comparison of Lawyers, Physicians and Postsecondary Teac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3), 749-758.
- Goldsheider, F. K., & Waite, L. J.(1986). Sex Differences in the Entry into Marria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1), 91-109.
- Houseknecht, S. H., Vaughan, S., & Statham, A.(1987). The Impact of Singlehood on the Career Patterns of Professional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2), 352-366.
- Macklin, E. D.(1980). Nontraditional Family Forms: A Decade of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4), 905-917.
- Marks, S. R.(1989). Toward a Systems Theory of Marital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1), 15-26.
- Stein, P. J.(1981). *Single Life: Unmarried Adults in Social Context*. New York: St. Martin's Press.

접 수 일 : 2009년 12월 3일

심사시작일 : 2009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 2010년 2월 4일